

임종자와의 만남과 이별

박태순(루시아)/성빈센트병원 봉사자

이 스피스 봉사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참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많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99년 2월 6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수녀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대세자 성○○ 마리아, 51세의 난소암 환자 가정을 방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에 관해서는 2주 전 본당 수녀님이 내가 봉사하는 성빈센트병원에서 '마리아'로 대세를 주셨고 임종이 임박해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서둘러 가서 환자의 상태를 보니 사전 방문이 전혀 없었던 터라 조금은 당황했습니다. 육안으로 보아 이미 임종을 했으나 가족들도 언급을 안하고 코에 꽂은 호스를 제거하지 않아 임종전이라 간주하고 본당 신부님께 병자성사를 청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환자의 상태가 의식이 너무 없어 "보례"가 불가능하며 병자성사도 곤란하다고 하셨기에 가족에게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가족, 친지와 상의해서 환자의 코에 꽂은 호스를 제거했습니다. 남편과 세 자매 그리고 많은 남편의 형제들과 환자(임종자)의 형제들이 함께 하고 있었으며 임종자의 율게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가족들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천주교식 장례를 원하신다며 모든 장례 절차를 저에게 위임하셨기에 저는 최선을 다하여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임종 후 기도를 바치고, 임종, 장례, 삼우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입염의 은총을 주셨기에 정성을 다해 입염을 했습니다. 고인이 복수가 많이 찼기 때문에 입염 중 흑시라도 분비물이 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성모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 안으신 예수님의 몸을 닮는 마음으로, 또 흑시라도 역겨운 냄새가 날지라도 성모님의 향기인 장미 향기로 맡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신은 깨끗했고,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하고 입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탈관을 하는 터이라 일곱 메로 묶어 놓고 보니 예쁜 번데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예술이죠" 마지막 가시는 분을 위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테지... 하며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장지에서 하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반환 연도와 고인이 평소에 받아보지 못한 묵주기도를 바치며 마지막 이별을 했습니다. 59세의 남편과 세 자매의 유가족들의 사후 호스피스를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긴 삼일간의 장례 절차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호스피스 봉사자로서 자부심과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